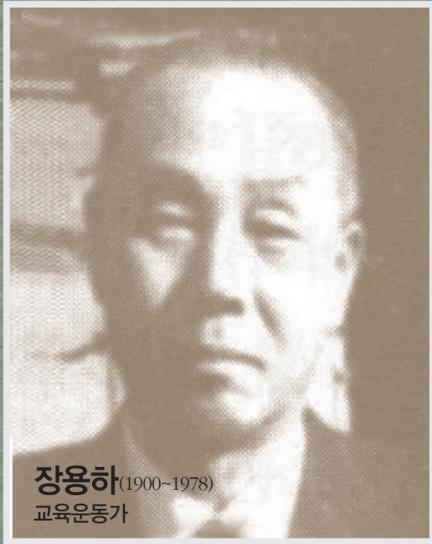




김폴린 (1898-1996)
교회교육 활동가



장용하 (1900-1978)
교육운동가



이동녕 (1869-1940)
임시정부의 대부



조신성 (1867-1953)
애국 할머니



강매 (1878-1941)
교육운동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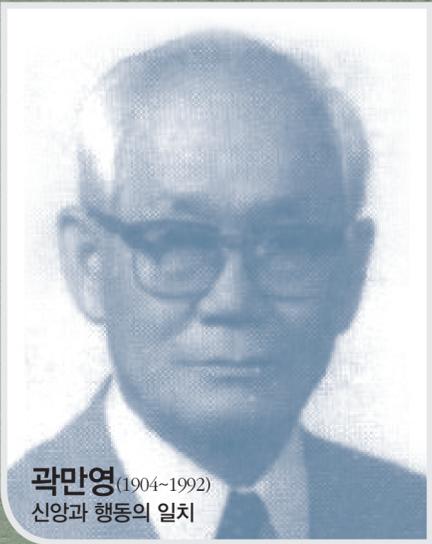
이준 (1859-1907)
헤이그 밀사



현동완 (1899-1963)
20세기 종로의 성자



우덕순 (1876-1950)
하얼빈 사건의 공모자



곽만영 (1904-1992)
신앙과 행동의 일치



이태영 (1914-1998)
한국의 첫 여성 법조인



감리교회를 **빛낸** 평신도Ⅲ